

울산 천전리 각석의 가치와 의미

전 호 태*

목 차

- I. 머리말
- II. 역사적 가치와 의미
- III. 문화예술적 가치와 의미
- IV. 종교·신앙적 가치와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 울산 천전리 각석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종교·신앙적 측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큰 유적이다. 빠르면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암각화부터 통일신라시대의 명문까지 여러 시대의 작품이 한 화면에 새겨진 점에서 시대성과 기록성이 풍부하다. 역사시대의 세선각기록화는 특정한 사건과 일화를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서사성이 뚜렷하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새겨진 한자 명문들은 문헌 기록으로 전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다.

점 찍기 기법으로 제작된 동물과 사람, 깊게 갈아내기 기법으로 새겨진 기하문은 선사시대 각 시기의 예술적 감각과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천전리 각석의 암각화는 간결하게 대상의 특징만 잡아내 표현하는 한국 고대 예술의 전통이 언제부터 성립되어 전해 내려오기 시작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암각문이나 역사시대 선각화를 통해 예술 표현의 다양성과 시대별 특징을 읽어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기법과 내용을 담은 천전리 각석의 암각화는

* 全虎兌,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jhtbh@hanmail.net

투고일: 2020. 10. 22. 심사완료일: 2020. 11. 17. 게재확정일: 2020. 12. 5.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9..7>

국내외를 통틀어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소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암각화가 바위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천전리 각석 앞은 선사시대에 종교 의례가 행해진 신성한 장소이다. 이것은 천전리 각석이 신앙 대상으로 귀중히 여겨진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천전리 각석에 수많은 명문이 새겨진 것도 바위 신앙과 관련이 깊다. 명문 위에 덧칠하듯이 더해진 수많은 선도 민속 신앙의 결과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천전리 각석, 암각화, 명문, 가치, 의미

I. 머리말

국보 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은 지닌 가치와 의미가 온전히 인식되고 평가되지 않은 유적이다(그림 1). 선사와 역사를 아우르는 긴 시간 사람과 마주쳐 주고받은 대화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유적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글은 천전리 각석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하나씩 짚어가며 살펴보기 위해 준비되었다.¹⁾

1) 이하 이 글에 사용되는 도면은 전호태, 장명수, 강종훈, 남연의, 윤효정, 『울산 천전리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에 실린 천전리 암각화 정밀 실측 보고에 의한다.



<그림 1> 천전리 각석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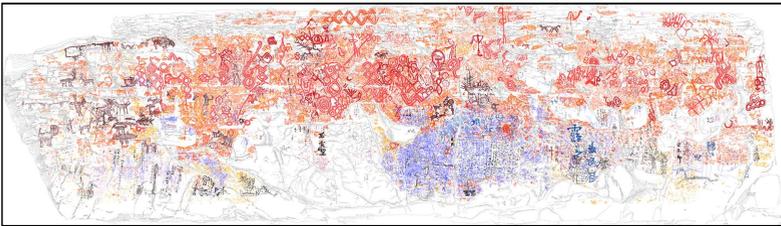
Ⅱ. 역사적 가치와 의미

1. 시대성

천전리 각석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선사시대의 어느 시점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바위를 찾아와 저들의 생각, 관점과 신앙을 암각화라는 형식으로 바위에 남긴 뒤, 최소 수천 년 동안 이곳을 찾는 사람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그림 2, 3). 천전리 각석에 처음 새겨진 것은 점을 찍듯이 쪼아 형상해 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사람이다(그림 4). 새겨진 깊이와 방식으로 볼 때 바위를 쪼 때 사용한 것은 바위보다 경도가 높은 돌이다.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위를 찾아와 짐승과 사람을 새겼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포르투갈의 고아 계곡에서 구석기시대 후기 암각화가 다수 발견되었지만,²⁾ 한국에서 확인된 구석기 유물과 유적에서 의도적인

2) João Pedro Cunha Ribeiro, "O VALE DO CÔA VINTE ANOS DEPOIS. O PASSAD

암각의 흔적은 불확실한 선긋기 정도임을 고려하면 서사적 풍경이 일부 포함된 듯이 보이는 천전리 각석의 점 쪼기 암각문은 신석기시대나 그 이후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³⁾



<그림 2> 천전리 각석 주암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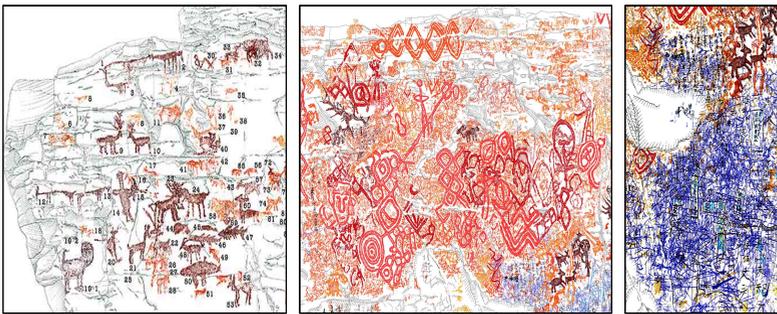
<그림 3> 천전리 각석 주암면 암각화 및 명문 실측도

점 쪼기 암각문을 훼손하면서 새겨진 기하문은 청동기시대의 작품일 가능

O, O PRESENTE E O FUTURO DE UM DESAFIO PATRIMONIAL,” 『코야계곡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 2015, 45~65쪽.

- 3) 최근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울산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농경 관련 유적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냥꾼 사회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쪼기 동물문이 청동기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냥꾼 사회의 생활 영역은 농경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이다. 울산과 같이 농경지대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농경사회와 사냥꾼 사회가 생활 영역을 공유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이 크다(그림 5).⁴⁾ 동심원문, 여성 성기문 등이 청동기시대로 편년 되는 다른 암각화 유적에서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함안 도항리 34호분 다호 고인들의 사례와 같이 청동기시대 고인돌 뚜껑돌에 새겨진 동심원문은 고인돌무덤이 만들어지던 시기보다 조금 이르거나 고인돌무덤이 축조되던 때에 암각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⁵⁾ 천전리 각석에 여성 성기문이 집중적으로 새겨진 것은 농경의례와 관련이 깊을 수 있는데, 한국 신석기시대 후기 농경의 시작과 어느 정도 관련이 깊은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4> 천전리 각석 주암면 점 쫓기 암각 실측도

<그림 5> 천전리 각석 주암면 깊은 선 새김 기하문 실측도

<그림 6> 천전리 각석 주암면 가는 선 기록화 및 명문 위로 덧그은 선

-
- 4) 전호태, 「천전리 암각화로 본 한국 선사 및 고대 미술양식」, 『역사와현실』 101, 2016a, 173~199쪽; 전호태, 「울주 천전리 각석의 세선각화와 동아시아 선사고대미술로 본 기록문화」, 『선사와고대』 47, 2016b, 5~29쪽.
- 5) 전호태, 이하우, 박초아, 『한국의 풍요제의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7, 87~90쪽.

<표 1> 기년명 판독문과 해석문

기년명	판독문	해석문
계사명 (No.178)	癸巳六月廿二日 喙壹奮 王夫 … 奈 夫人輩衆大等 … 部書人小 … 思郎女□作 鄒?呑越?釋? 余小知大兄加 豆篤知大兄加 宮頭辭 … 老峯却?豊?	癸巳年(453년, 눌지왕 37년) 6월22일 닭(부)의 일본 왕 부…나(마) 부인배중대등…부 서인소…사랑녀□작 추?탄월? 석? 일소지 대형가와 두독지 대형가 궁두사…노잠규?루?
갑인명 (No.179)	甲寅大王寺中 安藏 許作	甲寅年(534년, 법흥왕 21년) 에 대왕사의 (승)안장이 허락 받고 쓰다.
을묘명 (No.161)	日 乙卯年八月四聖法興大王節 道人比丘僧安及以沙弥 僧首乃至居知伐村衆士 六?人等見記	乙卯年(535년, 법흥왕 22년) 8월4일 성법흥대왕 때에 도인 인 비구승 안급이와 사미승 수내지가 거지벌촌 중사 6?인 등과 보고 기록하다.
계해명 (No.45)	癸亥年二月八日 沙喙□凌智小舍 婦兆德刀遊 行時書	癸亥年(543년, 진흥왕 4년) 2 월8일 사담부의 □릉지 소사 의 부인 조덕도가 놀러갈 때 에 쓰다.
을축명 (No.68)	乙丑年九月中沙喙部于西 夫智彼玆干支妻夫人阿刀郎女 谷見來時前立人威?女禮 兄喙?□迺?□□□悉工赴? 里□□□□奔次道?□ 三壹?□□迄□心麥夫智在 王?□ 枕宿夫正沘世□ 春夫之世□一輩三蕪粕 仇丈□大爲 小王二人心未 小老 云三(王?)	乙丑年(545년, 진흥왕 6년) 9 월에 사담부 우서부지 피진간 지의 처인 부인 아도랑녀가 골짜기를 보러 왔을 때 앞에 선 사람은 위?녀례형과 닭?□ 내?□□□실공부?리 □□□□ 분차소?□삼일?□□홀□ 심맥 부지가 왕위에 있던?□침숙부 정흘세□춘부지세□일배삼사 백 구장□대위 소왕 2인 마음을 적지 않게(쓰고) 운삼(왕?)
술년명 (No.14)	戊年六月二日 永郎成業 □ □(共?)	술년 6월2일 영광이 과업을 이루고□
상원2년명 (No.51)	上元二年乙亥正月廿日加具見之匕也大 阿干 卅八□□	上元二年(675년, 문무왕 15 년) 을해 정월20일 더 갖추어 본 비야대야간 38□□

상원4년명 (No.97)	上元四年十月廿四日夫十押宅猪場? 十二 永工	上元二年(675년, 문무왕 17년) 10월24일 부십평택 저오를 온전히 마치고
왕7년명 (No.76)	日?王七年僧徒上	日?王七年(687년, 신문왕 7년) 승 도상
개원명 (No.184)	元十二年甲子四月十一日喙奪?毛リ	(開)元12年(724년, 성덕왕 23년) 갑자 4월11일 닭부의 탈? 모가 새기다.
병술명 (No.24)	丙戌載七月廿六日 辛亥年九月中芮雄妻并行	丙戌載(746년, 경덕왕 5년) 7월26일 辛亥年(771년, 혜공왕 7년) 9월에 예웅의 처가 함께 가다.
병신명(No.125)	丙申載五月七 慕郎行賑(賦?) 道合造リ(↑?)	丙申載(756년, 경덕왕 15년) 5월7일 모랑이 진휼하러 가며 도연이 지어 새기다.
개성명 (No.11)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見□ □□典來之	開成3年(838년, 민애왕 원년) 무오 3월1일 문암을 보러 □□□전 오다.
을미명 (No.31)	乙未九月五日道安号 春談道權伊就等隨	乙未年(?) 9월5일 도안이 부르니 춘담, 도권, 이취 등이 따라오다.
신해명 (No.98)	辛亥年九月 圭陪朗吉成三人 月	辛亥年(?) 9월 규배, 월랑, 길성 세 사람
병명 (No.48)	丙 首烏行川邊共?徒?□□育?丙九 月丙	丙(?) 수오가 냇가에 행차하니 함께 한 무리들이~하다. 병9월 병

천전리 각석에는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명문 외에 시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선 긋기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다(그림 6).⁶⁾ 기존의 명문 위에 더해진 수많은 선은 명문이 새겨진 이후 사람이 그 위에 남긴 흔적이다. 적어도 명문이 새겨진 시기보다 후대의 흔적임은 확실하다.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근현대의 낙서도 바위에 남겨진 인간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천전리 각석에 남아 있는 기년명 명문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삼국시대인

6) 전호태, 장명수, 강중훈, 남연의, 윤효정, 앞의 책, 2014, 12쪽, 그림 1.

453년(눌지마립간 37년, 계사명) 새겨진 것이고 제일 늦은 것은 통일신라 시기인 838년(민애왕 원년, 개성명) 새겨진 것이다(표 1). 두 시점 사이에 새겨진 기년명 명문들을 보면 5세기 중엽부터 9세기 전반 사이에는 신라의 왕공, 귀족, 승려, 화랑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와 저들의 흔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⁷⁾ 신라 사람들에게 이곳은 신성한 바위가 있는 골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천전리 각석에 귀족과 승려들이 찾아오는 일은 뜸해지나, 명문 위에 그려진 수많은 선은 민간 차원에서는 방문이 계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곳에서 확인되는 바위 신앙의 사례로 보아 화랑 각석으로도 불렸던 이 바위에는 늘 사람이 찾아왔다고 보아야 한다. 근현대까지도 이 바위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천전리 각석이 발견되고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진 뒤 최소한 수천 년 동안 바위와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고 하겠다.

2. 서사성

천전리 각석에 남은 다양한 흔적은 여러 시대 일상의 풍경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이 바위에 처음 암각을 시도한 사람들은 점을 쫓아내는 듯이 보이는 기법으로 암수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룬 짐승들을 여럿 나타냈다(그림 7).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암수가 짝을 이루어 번식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런 표현으로 이를 기원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암수가 한 쌍을 이룬 짐승 표현에서 특정한 인식과 관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⁸⁾

7) 전호태,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b, 209~242쪽.

8) 전호태, 「울주 천전리 암각화 동물문 연구」, 『한국사연구』 182, 2018a, 1~27쪽.



<그림 7> 천전리 각석 주암면 점 쪼기로 형성된 한 쌍의 사슴
<그림 8> 천전리 각석 주암면 기하문

점 쪼기 짐승과 사람이 무리를 이룬 장면은 무리의 한가운데, 혹은 한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활이나 그 밖의 도구를 몸에 지니고 있어 사냥꾼이 사냥을 시도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역시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서사에 해당한다. 사냥으로 먹고살던 한 시대의 풍경이 암각화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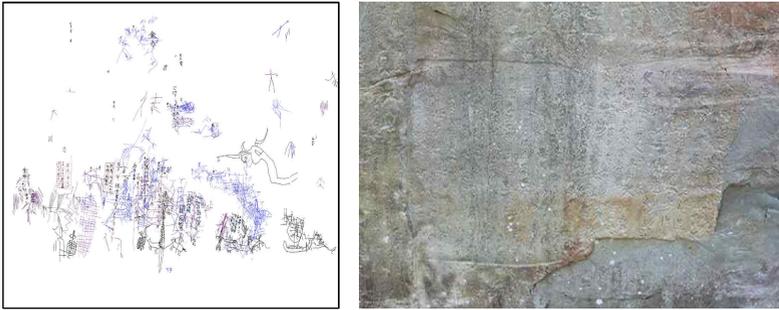
천전리 각석에 두 번째로 새겨진 기하문 중심의 암각화에서도 서사적 풍경을 읽어낼 수 있다(그림 8). 기하문에 부여된 언어적 기능과 이미지의 의미를 조합하면 이야기가 된다.⁹⁾ 기도문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신이나 신성한 어떤 존재와의 대화일 수도 있다. 겹마름 모는 땅이고, 동심원은 하늘이며, 두 종류 기하문이 섞이고 덩어리진 상태가 땅과 하늘 사이, 하늘 큰 여신과 땅의 남신 사이의 교통이라면¹⁰⁾, 기하문의 집합은 거대한 서사의 일부가 된다. 기하문들 사이에 하늘로 오르는 뱀, 외형만 그려진 물고기가 등장하는 것도 이 서사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9) 전호태, 앞의 논문, 2016a, 173~199쪽; 전호태, 앞의 논문, 2016b, 5~29쪽.

10) 아리엘 골란, 정석배 옮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2005, 384~390쪽.

하겠다.

역사시대의 가는 선 긋기 기록화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일화나 사건이며 행사임을 잘 보여준다(그림 9).¹¹⁾ 길고 짧은 여러 편의 서사가 가는 선으로 그린 풍경 겸 기록으로 남은 것이다. 춤추며 앞으로 나아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 특이한 모자를 쓴 듯이 보이는 기마인물, 여러 척의 배로 이루어진 선단에서 한 시대에 잘 알려졌던 사건이 바위그림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9> 천전리 각석 주암면 남쪽 가는 선 기록화 실측도

<그림 10> 천전리 각석 주암면 원명과 추명

소용돌이치는 못 위로 솟아오르는 용, 솟대 모양의 장대, 여러 마리의 새 등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유명한 일화나 소문을 떠올릴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이며 말로 이루어진 여러 무리 위로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용의 머리 하나만으로도 ‘용’을 둘러싼 신화전설의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도 있다.¹²⁾

11) 전호태, 「울주 천전리 서석 세선각화 연구」, 『울산연구』 1, 울산대학교 박물관, 1999, 26쪽.

12) 전호태, 「울산 천전리 서석 암각화의 용」,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77~105쪽.

역사시대의 명문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짧고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록적 성격을 지닌 서사이자 한 시대의 풍경이다(그림 10). 원명으로 알려진 긴 명문은 525년 법흥왕의 동생 徒夫知葛文王이 이끄는 신라 왕가의 인물들이 왕경 끝자락 천전리 골짜기의 이 신비한 바위를 찾아와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명문을 새기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535년 새겨진 을묘명(535년, 법흥왕 22년: 을묘년 8월4일 성법흥대왕 때에 도인인 비구승 안급이와 사미승 수내지가 거지벌촌 중사 6인 등과 보고 기록하다.)은 두 사람의 승려가 지금의 울산 언양을 가리키는 거지벌촌의 주요한 인물들과 이 바위를 찾아와 바위에 새겨진 명문과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음을 알게 한다.

근래까지의 바위 신앙 양상을 고려하면 바위에 명문이 더는 새겨지지 않고 명문과 그림 위로 가는 선만 더해지는 과정을 민속 신앙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서사적 풍경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¹³⁾ 평범한 사내와 아낙들이 치성을 드릴 이바지 몇 가지를 지고, 이고 이 영험스러운 바위를 찾아와 바위 곁에 선을 그으며 바위 신에게 아기 달라고, 가을 농사 잘되게 해 달라고, 비 좀 내려달라고 정성스레 빌고, 또 비는 풍경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3. 기록성

천전리 각석에 남은 수많은 명문은 역사기록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기존 사서에 없는 기록이 명문 중에 여럿 보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원명과 추명도 기존의 역사기록에는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에 진흥왕으로 즉위하는 사부지갈문왕의 아들 심맥부지가 어머니

13) 나희라, 「울주 천전리 각석과 신라인의 바위신앙」, 『신라문화』 50, 2017, 1~25쪽.

지물시혜비(지소부인)의 손을 잡고 이 바위를 찾아왔다는 추명의 기록은 천전리 각석이 범흥왕, 진흥왕 시대에 신라 왕가에서 중요시하는 일종의 성소로서 기능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기록으로 전하지 않는 사건들 외에 명문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이름이나 관명, 직명, 지명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2). 당장 원명과 추명에 등장하는 사부지갈문왕의 여동생 어사추녀랑왕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원명보다 이른 시기의 명문으로 추정되는 계사명(453년, 눌지왕 37년)의 伏戶智, 昔夫智, 六叶夫智도 역사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계사명에 언급된 大兄加는 고구려 관등인 大兄과 관련 있음이 확실하다.¹⁴⁾ 그렇다면 신라와 고구려 사이가 비교적 원활하던 시기에 이 명문이 새겨졌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¹⁵⁾

14) 전호태, 앞의 논문, 2018b, 209~242쪽.

15) 450년 신라의 하슬라성주 삼직이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던 고구려 변방 장수를 죽인 사건으로 술렁이던 두 나라의 관계가 신라 눌지왕의 공식적인 사과로 일단락된 이후, 이 명문이 새겨진 사실은 고구려와 신라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원 고구려비문은 5세기 후반 고구려 태왕과 동이매금으로 불린 신라 왕 사이의 상하 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임기환,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寐錦」,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141~174쪽; 이성계,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175~205쪽).

<표 2> 무기년명 및 기타 명문 판독문

인명, 기타		명문	비고
인명	승려	朴号(兮?)法師(No.22), 惠訓(No.105), 建?通(遍?)法師(No.73)	
	귀족	大德公隨下也 人黃?焦?□巡 善焦□□□人 □□□□□ 今(全?)羊(No.49), 伏戶智(No.86), 昔夫智書(No.72), 六叶夫智大一/行作文之(No.113), 馬谷孝信大子(No.150)	
	화랑	金郎□行碧司(No.1), 欽春(No.17), 三月七日/暮郎徒于此?司(No.21), 天 官郎(No.30), 思果沙/郎奴(No.62), 想郎(No.67), 林元郎(No.71), 法惠郎(No.83), 貞光郎(No.104), 文僉郎(No.106), 相郎(No.111), 水品罷世/好世/僧苑/明?(No.118), 大玄徒人(No.121), 柒陵郎(No.128), 沖陽郎(No.142), 法民郎?露?(No.157), 柒郎(No.175), 文王郎(No.188), 金仍郎 父師郎(No.180), 成年郎(No.203)	首烏(No.48), 道信(No.77), 竹道(No.114), 行吉(No.136), 陽世(No.192)
	기타	□□里娘?徒見司??(No.15)	
미분류		母, 道, 大, 生, 王, 人, 孝, 郎, 竹, 流水(No.4), 水求(No.47), 越世(No.55), 初立(No.58), 大禮大母(No.82), 二人同心(No.115), 立道(No.153-2), 道業(No.154-3), 父子(No.170), 礪石信盟問(No.202)	道, 大 등 단자는 10회 이상 새겨진 경우도 있어 변호를 병기하지 않는다.

524년(법흥왕 11년) 세워진 울진 봉평신라비에 ‘牟卽智寐錦王’으로 언급된 법흥왕이 추명에는 ‘另卽知太王’으로 기록되고, 535년 새겨진 을묘명에는 ‘聖法興大王’으로 불리는 것에서 왕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 몇 차례 바뀌었고, 불교 공인 이후, 법흥왕이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한 성스러운 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천전리 각석의 명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居智伐村은 『삼국사기』에 居知火縣으로 나오는 울산 언양을 가리키는 지명이다.¹⁶⁾ 별=불=화, 곧 불 火를 쓰고 별, 불로 읽는 이두식 표현과 읽기의 사례를 재확인시켜준다.

16) 강중훈, 「명문의 새로운 판독을 통해 본 울주 천전리 각석의 성격과 가치」, 『대구사학』 123, 2016, 14쪽.

상원4년명(677년, 문무왕 17년)에 등장하는 夫+抨宅은 신라 35 金入宅에 는 나오지 않는 태호이다. 역사기록으로는 신라 진골귀족 가문에서 사용되던 태호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¹⁷⁾ 개성명(838년, 민애왕 원년)은 사부지갈문왕이 이름을 지어준 뒤 書石으로 불렀던 천전리 각석이 통일신라 시대에는 文巖으로도 일컬었음을 알게 한다.

원명과 추명 위에 굵고 크게 새겨진 水品, 罍世, 好世, 儻苑, 明 등은 이름이다. 호세가 진평왕 시대 화랑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외의 이름도 역사기록에 남지 않은 화랑들일 수 있다. 法敏郎은 문무왕의 이름이 김법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문무왕이 화랑이었을 때 일컫던 이름일 수 있다. 文王郎은 태종무열왕의 3남 김문왕이 화랑이었을 때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首鳥, 道信 같이 郎이라는 글자가 뒤에 붙지 않은 인명 역시 화랑을 가리킬 수 있다. 이외에 천전리 각석에 이름만 등장하는 상당수의 명문이 화랑과 관련 깊은 듯이 보여 후대에 화랑 각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Ⅲ. 문화예술적 가치와 의미

1. 예술성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미적 감각과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읽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유적이다.¹⁸⁾ 신석기시대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쪼기 짐승과 사람은 회화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선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과 짐승을 나타내는 나뭇의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미적 감각을 드러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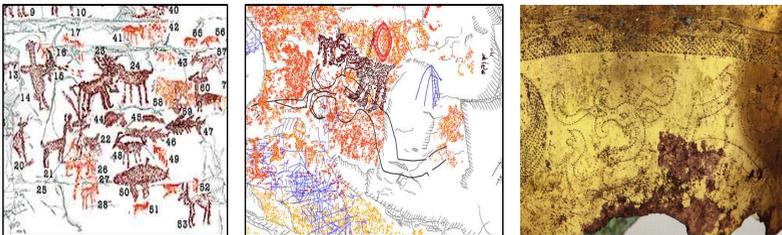
17) 전호태, 앞의 논문, 2018b, 209~242쪽.

18) 전호태, 앞의 논문, 2016a, 173~199쪽.

할 수 있다.

바위에 새김을 시도한 사람들은 형상 내부 표현, 곧 눈, 코, 입과 같은 얼굴의 세부 형태나 몸의 무늬 등은 알 수 없지만, 간결한 몇 줄의 선만으로도 외형을 드러내 짐승이나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11). 사슴의 경우, 커다란 뿔을 강조하고자 줄기와 가지까지 세밀하게 표현함으로써 짐승의 뿔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전 세계 여러 민족과 사회에서 확인되는 ‘생명의 뿔’ 신앙에 바탕을 둔 예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천전리 각석의 기하문 역시 한 시대의 미적 감각을 담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굵고 깊게 갈아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겹마름모나 동심원에 새긴 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원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런 무늬를 새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공유하던 관념의 표현이자 선호하던 표현 기호로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천전리 각석 주암면 점 쫓기 그림: 활 쏘는 사람과 짐승들 실측도

<그림 12> 천전리 각석 주암면 남쪽 가는 선으로 그린 용

<그림 13> 경주 천마총 출토 금동합에 새겨진 용

19) 필자는 이런 뿔을 ‘생명의 뿔’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황금 뿔 사슴을 언급한 이하우의 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의미를 지닌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하우, 「천전리의 동물표현, 황금 뿔의 사슴」, 『한국암각화연구』 14, 2010, 95~102쪽).

사실 곱마름모와 동심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뒤섞여 무리를 이룬 작품은 천전리 각석에만 남아 전한다. 그러나 동심원이나 나선문은 청동기시대 작품으로 추정하는 여러 암각화 유적에서 확인된다. 동심원 유형의 무늬가 이 시대에 가장 선호된 보편적 표현 양식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유럽과 서아시아의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물과 유적에서 동심원 문이나 나선문 장식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²⁰⁾

이중 타원이나 호선형 곱마름모 안에 세로 선을 그어 나타낸 여성 성기문이 동심원이나 곱마름모와 함께 새겨지고, 하늘로 오르는 뱀이나 선 몇 개로 표현된 물고기, 눈과 입만 나타낸 사람 얼굴이 기하문과 함께 등장하여 풍경을 이루게 한 것도 예술적인 구상과 스케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기하문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표현이 서사적 풍경을 만들어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역사시대의 미적 감각은 가는 선으로 그어 나타낸 상상의 동물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바위에 새겨진 네 마리의 용은 각각 모습과 자세가 다르다.²¹⁾ 어떤 용은 선 몇 개로 표현되었고, 어떤 용은 짐승 머리에 뱀 비늘이 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또 어떤 용은 고분벽화의 청룡과 모습이 매우 닮았다고 할 정도로 세부적인 표현이 더해졌다. 바위 남쪽 하단의 두 행렬 위에 그려진 용의 머리는 경주 천마총 출토 금동합에 장식된 것과 사실상 같아 삼국시대 신라 사람들이 선호하던 용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그림 12, 13).²²⁾ 이 시기 상상적 동물에 대한 예술적 표현이 천전리 각석에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역사시대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원명과 추명은 6세기 전반 신라에서 비문을 새기던 방식을 적용하여 바위에 명문을 새긴 경우이다.²³⁾ 추명은 비문임을

20) 아리엘 골란, 정석배 옮김, 앞의 책, 2005, 61~63쪽, 389~390쪽; 마리아 김부타스, 고희경 옮김,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2016, 279~303쪽, 311~313쪽.

21) 전호태, 장명수, 강종훈, 남연의, 윤효정, 앞의 책, 2014, 21쪽, 도면 8.

22) 전호태, 앞의 논문, 2015, 81~82쪽.

23) 강종훈, 앞의 논문, 2016, 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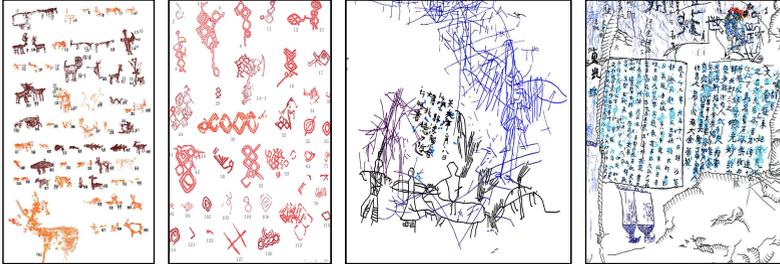
을 나타내는 題額에 해당하는 바깥 선을 긋고 그 안에 줄을 이루도록 글자를 새겼다.²⁴⁾ 일부 글자는 중국 漢代 隸書에서 楷書로 나아가는 서체의 기풍이 있으나, 漢에서 北朝로 이어지는 중국 한자 서체의 흐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서체가 전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명과 추명을 서예 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명과 추명보다 이른 시기의 명문으로 추정된 계사명에는 한대 예서풍이 잘 남아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새겨진 명문의 서체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문 역시 예술적 표현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 다양성

천전리 각석의 그림과 명문은 다양한 기법과 양식을 보여준다. 점으로 쪼아 짐승과 사람을 형상화하는 과정은 근대 유럽의 점묘법 회화나 크케 다르지 않다. 그냥 무작위로 점을 찍다 보니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위에 점묘법 방식 새김으로 대상을 형상화하는 과정도 일률적이지는 않다.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양식적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몸통이 짧고 뭉툭한 느낌을 주거나, 허리가 길고 가늘게 표현된 짐승들은 초기의 작품이고, 머리와 몸통이 크고 때로 뿔을 강조하는 등 몸의 특정 부분을 과장하며, 일부만 표현한 짐승들은 후기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그림 14). 짐승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 덧대어 人面獸가 된 그림의 경우, 두 차례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²⁵⁾

24) 김현권,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신라인의 이해와 행렬도 제작」, 『강좌 미술사』 36, 2011, 96쪽.

25) 전호태, 앞의 논문, 2018a, 1~27쪽.



<그림 14> 천전리 각석 주암면 점 쪼기 동물문 개별 형상
 <그림 15> 천전리 각석 주암면 깊은 선 새김 기하문 개별 형상
 <그림 16> 천전리 각석 주암면 남쪽 가는 선 기록화: 행렬
 <그림 17> 천전리 각석 주암면 중앙 가는 선 기록화: 명문으로 훼손된 말과 귀족

기하문 작업 역시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선을 깊고 굵게 갈아낸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 번 작업이 이루어진 기하문에 갈아나기를 더하는 사례도 있고, 기하문을 추가로 덧대어 연속된 기하문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5). 하늘로 오르는 뱀이나 사람의 얼굴만 따로 나타낸 경우도 별도 작업의 결과로 보인다. 기하문 사이에 간간히 보이는 구상적 표현들은 기하문과 별도로 새김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는 선으로 그어 행렬을 나타내거나 상서로운 새와 짐승을 표현한 경우 역시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양식과 기법으로 확인된다(그림 16). 기마행렬이나 선단을 그린 사람과 커다란 용의 머리를 따로 그린 사람이 동일인이 아님은 확실하다. 원명과 추명에 의해 삭제된 말과 귀족을 새긴 사람 역시 행렬 및 용을 그린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행렬이나 선단, 용은 간결한 선만으로 대상을 형상화했지만, 원명과 추명이 새겨지기 전 말과 귀족을 바위에 새긴 사람은 남은 부분으로 볼 때, 귀족 얼굴의 세부도 그렸을 것으로 보이며, 말에게 채워졌던 마구들도 일부 표현했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그림 17).

두 마리의 용 근처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면상을 그린 사람도 행렬이나 선단, 용을 그린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 정면상을 새긴 인물은 귀족과 말을 새긴 사람과도 다른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 귀족을 그린 사람은 귀족이 신은 신의 형태나 종류까지 알 수 있게 세심하게 대상을 묘사했지만, 정면상을 새긴 이는 사람을 크게 그리면서도 세부 묘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화가들이 인물화에서 초상화가 아닌 한, 정면상보다는 반(半)측면상이나 측면상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정면상의 경우는 특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명문 역시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님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서체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천전리 각석 명문 서체의 변화 과정이 일일이 추적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신라 금석문 역사의 한 장을 따로 서술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3. 희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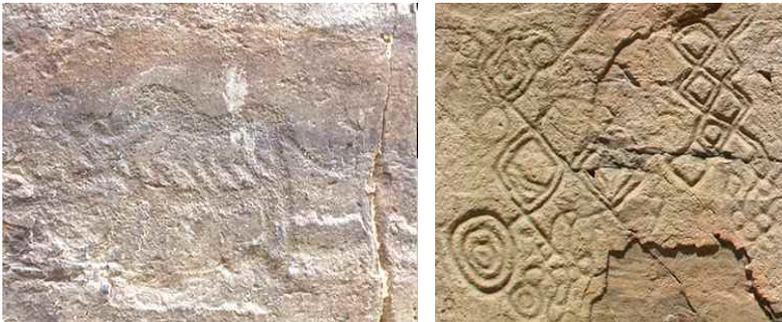
천전리 각석은 선사에서 역사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여러 시대의 작품이 한 화면 안에 모여 있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적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희소성이 높은 유적인 것이다.

수십 마리의 고래 그림으로 잘 알려진 반구대암각화는 바위에 육지동물도 다수 새겨져 있지만, 새김이 이루어진 시기는 선사시대로 한정된다. 암각화 기법의 발전 단계로 볼 때, 반구대암각화 주암면에 깊게 새겨 갈아낸 마지막 시기의 맹수들도 천전리 각석에서 기하문이 새겨지기 이전에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물이다(그림 18, 19).²⁶⁾ 반면에 천전리 각석의 점 쫓기 짐승과 사람들

26) 전호태,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2013, 137~139쪽.

은 반구대암각화가 새겨지기 시작하던 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새겨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천전리 각석 암각화 작업의 상한선은 반구대암각화가 처음 새겨지던 때보다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천전리 각석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이 더해진 건 현대다. 사실 최근까지 각석에는 여행객의 낙서 새김이 더해졌다. 이런 사례를 논외로 쳐도 천전리 각석의 사용 연대는 근대까지 내려온다. 대곡천 건너 바위절벽에 새겨진 반구대암각화와 달리 천전리 각석은 대곡천 곁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곳에 있다. 이런 까닭에 화랑 각석으로 불리면서 오랜 기간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근대까지 인근의 평범한 남녀 백성이 천전리 각석에 찾아와 이미 새겨진 그림과 명문 위에 선을 그으면서 저들의 소원을 빌었다.



<그림 18> 반구대암각화 주암면 갈아 새김 맹수

<그림 19> 천전리 각석 주암면 깊은 선 새김 기하문

신석기시대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자 성소가 근대까지 사용되고 믿어졌다는 점에서도 천전리 각석은 희귀한 유적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천전리 각석은 여러 시대를 설명해줄 수 있는 현장 역사 교과서라는 성격도 지닌다. 암각화 주제와 양식, 기법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업의 변동이 종교 신앙의 변화와 걸음을 함께 한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게 한다. 역사시대의 그림이 선사시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전제되

는 사고와 관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문을 새기는 행위가 어떤 의례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천전리 각석을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무얼 했는지도 알게 한다.

IV. 종교·신앙적 가치와 의미

1. 종교성

천전리 각석에 점 쪼기 방식으로 새겨진 짐승과 사람이 사냥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남긴 서사의 한 부분임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바위에 무언가 새기는 행위는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된 바위 새김, 바위 장식에 종교적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해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사람과 돌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 이로 말미암은 관념 때문이다.

돌은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친숙하게 여긴 자연의 한 부분이다. 어쩌면 사람에게 돌은 자연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존재였을 수도 있다. 신화라는 이름의 스토리텔링에서 생명체도 아니면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생명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 것도 돌이고, 바위이다. 선사시대이든, 역사시대이든 신화와 설화에서 바위는 나무와 비슷한 정도로 자주 언급되었다.

고대사회의 신화에서 바위산은 신의 뼈, 바위는 굳어진 신의 피로 언급되고 때로 바위에 신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으로 스토리텔링 되는 사례도 있다. 바위에 깃든 신성은 바위가 생명을 품고, 탄생시키는 주체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²⁷⁾ 鯤淵이라는 큰 못 옆의 큰 바위를 젖혔더니, 그 아래 개구리 모양의 아기가 있어 궁궐로 데리고 가 키워 왕으로 삼았다는 『삼국사기』와

2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용주 옮김, 『세계종교사상사』 1, 이학사, 2005, 192~195쪽; 나희라, 앞의 논문, 2017, 9~11쪽.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바위가 신성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례에 해당한다.²⁸⁾ 부여왕 해부루의 뒤를 이은 금와왕 이야기다.

점의 집합으로 보이는 천전리 각석의 짐승과 사람도 새긴 사람들과 바위 사이에 시도되었던, 또 이루어진다고 믿던 대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바위에 뭔가를 새긴 사람들 처지에서는 기도와 주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주문을 외면서, 바위에 특정한 주제의 풍경을 새긴 것이다. 사냥이 주제라면 사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때마다 성공하게 하려는 주문이다.



28)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모석(母石)·기자석(祈子石)·망부석(望夫石)을 중심으로-」, 『구비문화연구』 36, 2013, 119~150쪽.



<그림 20> 천전리 각석 주암면의 깊게 갈아낸 기하문 각종

점 찌기 암각을 갈아내면서 새겨진 기하문 역시 기도와 주문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새로운 유형의 새김무늬를 남긴 사람들은 사냥이나 채집이 아니라 농경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곱마름모와 동심원을 중심으로 여성 성기문이나 하늘로 오르는 뱀, 사람의 얼굴, 물고기 등을 덧붙인 무늬를 새긴 데에서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그림 20).²⁹⁾ 여성 성기문과 뱀은 하늘이 비를 내리기 바라면서 새긴 것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³⁰⁾ 여신과 남신의 교합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신석기시대 후기 동유럽 및 중근동 농경사회의 오래되고 보편적인 종교 관념이 한국의 암각화에서도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천전리 각석에 기하문을 남긴 사람들은 바위 새김을 시도하고 마무리 짓는

29) 구석기 후기 유물에서도 발견되는 그물문은 연속마름모문처럼 보이지만, 농경시대 기하문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외형상의 유사성과 용도나 의미에서 지니는 차이는 별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성 성기문 표현에 투사된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사냥꾼 사회에서 생명 탄생의 그릇이자 매개로 여성 성기문이 표현될 수도 있고, 농경사회에서 생산과 수확을 염두에 둔 신적 생명력의 상징으로, 주술적 도구로서의 의미도 담은 여성 성기문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표현이 지닌 의미와 쓰임새는 그것이 출현하고 표현된 전후 맥락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환경 조건을 고려하면서 규정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0) 아리엘 골란, 정석배 옮김, 앞의 책, 2005, 39~71쪽, 333~340쪽.

과정에 바위 앞에서 농경 제의도 치렀을 것이다.

천전리 각석에 가는 선으로 형상화된 역사시대의 용 그림은 그 시대의 종교 신앙과 관련이 깊다고 보아야 한다(그림 21~23).³¹⁾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용은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영험한 존재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농경이 주된 생산 수단인 사회에서 왕을 용에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천전리 각석 주암면 북쪽 승천하는 용

<그림 22> 천전리 각석 주암면 북쪽 앞드린 용

<그림 23> 천전리 각석 주암면 북쪽 앞으로 나가는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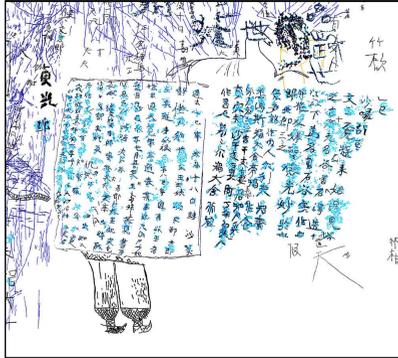
천전리의 신성한 바위에 용이 네 차례나 등장하는 것도 기우제와 관련 있을 것이다. 빠르게 소용돌이치는 못 위로 몸을 솟구쳐 하늘로 오르는 듯이 묘사된 용은 기우제가 응답받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呪文에 가깝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용이 기우제의 대상이었음을 알려주는 기사도 있다.

천전리 각석에 다수 남아 있는 명문 역시 문자에 주술적 힘이 있다는 오랜 관념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³²⁾ 세계적 보편성을 보이는 문자의 주술적

31) 전호태, 앞의 논문, 2015, 77~105쪽.

32) 서왕모의 이름을 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죽지 않을 것'이라며 낮에는 계단을

힘은 여러 유형의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바위에 문자를 새기는 것도 주술적 효과를 염두에 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4> 천전리 각석 주암면 원명과 추명 실측도

유명한 원명을 새기면서 이전에 새겨진 말과 귀족의 모습을 훼손한 것, 새겨진 원명이 누군가에 의해 쪼아진 것도 주술 관념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림 24).³³⁾ 말과 귀족이 지닐 수 있던 신비한 힘은 원명이 새겨지면서 상실되었고, 원명의 명문이 한 자씩 쪼아지면서 글자로 말미암은 특별한 능력은 쪼아낸 자에게 옮겨졌다고 믿어졌을 것이다. 천전리 각석에 이름만 남긴 귀족과 승려, 화랑들도 바위에 다녀갔음을 기록으로 남겨 기억되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위에 있는, 바위 신이 지닌 힘과 능력을 얼마라도 덧입으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리고 그 앞에서 노래와 춤으로 제사하고 밤에는 불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북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는 전한 말 애제 때의 서왕모 운동 기사는 문자가 지니는 힘에 대한 민중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漢書』「五行志」下; 전호태, 『중국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술, 2006, 40~42쪽).

33) 전호태, 앞의 논문, 2018b, 209~242쪽.

2. 민속성

바위 신앙은 역사가 깊고 오래다. 보편적이기도 하다. 아마도 바위는 사람이 처음 신앙 대상으로 삼은 우주 만물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삶을 꾸러가는 동력의 한 부분이 바위 신앙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유럽과 근동에는 바위 신앙에 바탕을 둔 신석기시대 거석문화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다.³⁴⁾ 거석문화는 청동기시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어지는 역사시대의 여러 왕국과 제국에도 자취를 남긴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무덤도 거석문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시대와 지역, 계층을 아우르던 바위 신앙이 정교하고 체계적인 외래의 종교 신앙에 밀려 점차 위상이 약화하는 현상은 역사시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 지나치게 보편적이고 개방적이어서 계층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신분제에 바탕을 둔 국가나 사회에서는 신분제의 정당성을 설명해주고 강화하는 관념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 신앙은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민속의 한 부분이 되었다.

천전리 각석의 암각화와 명문도 이런 역사적 전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점 쫓기 짐승과 사람이 어우러진 서사적 풍경으로 시작된 바위와 사람 사이의 진지한 교류는 기하문 새김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역사시대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는 선으로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에 용이나 새가 새겨진 부분에서는 바위 신앙의 위상이 뚜렷하지만, 사람과 말로 이루어진 행렬에서는 바위 신앙의 강도가 이전처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명문이 여럿 새겨지던 시기에도 바위 신앙은 여전히 할 수 있으나, 왕족과 귀족, 승려들과 화랑들이 바위에 있다고 여기던 영험한

34)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용주 옮김, 앞의 책, 2005, 195쪽.

힘에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던 신라 중대와 하대에 지배계층에게 바위 신앙은 주류 종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관념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 백성에게 바위 신앙은 새롭게 알려지고 자리 잡은 불교나 도교 등에 굳이 비교할 것도 없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신석기시대 이래의 여러 가지 관습과 신앙, 제의가 삶에 녹아들어 있었듯이 바위 신앙도 그러했을 것이다. 바위 신앙 역시 신석기시대 이래 지켜온 종교 신앙의 한 갈래이니까.³⁵⁾ 바위 신은 집을 지켜주는 구렁이 신, 부엌 아궁이 불씨가 지나는 신성성, 아이 낳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삼신할매 등과 어께동무 하는 존재와 다름없지 않은가?

천전리 각석 명문과 그림 위에 질서 없이 그려진 수많은 선은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 민속으로 남은 바위 신앙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역사시대의 그림과 명문 위에 집중된 가는 선은 시대를 특정할 수 없지만, 어쩌면 시대와 관계없이 천전리의 신성한 바위를 찾아와 신과 만나려 한 무지렁이 백성들의 기도문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바위 신앙 현장에서 채록된 아기 얻기, 복 받기, 재물 구하기는 조선과 고려를 거쳐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다(그림 25). 울산 가지산 쌀바위에 전하는 쌀 나오는 구멍을 넓혔더니 샘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바위 신앙에 투사된 평범한 백성의 소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그림 26).

3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용주 옮김, 앞의 책, 2005, 192~195쪽.

36) 나희라, 앞의 논문, 2017, 1~25쪽.



<그림 25> 순창 창덕리 남근바위
<그림 26> 울산 가지산 쌀바위

V. 맺음말

울산 천전리 각석은 삼국시대의 신라나 통일신라시대 역사뿐 아니라 한국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유적이다. 지금까지 중심적인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기하문 새김 이전에 이루어졌던 암각 작업의 주체와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암각화 유적은 처음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살펴보아야 하지 않는가?

천전리 각석에는 여러 시대 사람들의 손길이 가해졌고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시대 사람들이 천전리 각석을 찾아와 흔적을 남긴 만큼 각 시대 작업의 내용과 의미, 작업 기법과 양식이 상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선사와 역사, 각 시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종교학, 민속학, 암석학, 지질학, 고생태학 등등 여러 분야 연구자가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 시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특유의 방식으로 녹아들었다면 천전리 각석의 암각화와 명문을 연구하는 과정도 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각 시대의 양식과 기법이 적용된 암각화와 명문으로 그려진 풍경과 서사는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읽어내기 쉽지 않다. 이는 학제적 접근과 연구, 개별적 분석과 종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음을 뜻한다. 천전리 각석 연구 포스트가 세워져 이를 중심으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천전리 각석은 시대성, 서사성, 예술성, 기록성, 종교성, 민속성, 다양성, 희소성이 뚜렷한 가치 있는 유적이다. 정밀실측도와 같은 기초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분야별 기본 연구가 이루어져 그 성과가 공유되고, 심화 연구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정리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듯하다.

참고문헌

- 강종훈, 「명문의 새로운 판독을 통해 본 울주 천전리 각석의 성격과 가치」, 『대구사학』 123, 2016.
- 김현권,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신라인의 이해와 행렬도 제작」, 『강좌 미술사』 36, 2011.
- 나희라, 「울주 천전리 각석과 신라인의 바위신앙」, 『신라문화』 50, 2017.
- 마리아 김부타스, 고희경 옮김,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2016.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용주 옮김, 『세계종교사상사』 1, 이학사, 2005.
- 아리엘 골란, 정석배 옮김,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2005.
- 이성제,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 이하우, 「천전리의 동물표현, 황금 뿔의 사슴」, 『한국암각화연구』 14, 2010.
- 임기환,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寐錦」,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 전호태, 「울주 천전리 서석 세선각화 연구」, 『울산연구』 1, 울산대학교 박물관, 1999.
- 전호태, 『중국 화상석과 고분벽화 연구』, 술, 2006.
- 전호태,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2013.
- 전호태, 「울산 천전리 서석 암각화의 용」,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 전호태, 「천전리 암각화로 본 한국 선사 및 고대 미술양식」, 『역사와현실』 101, 2016a.
- 전호태, 「울주 천전리 각석의 세선각화와 동아시아 선사고대미술로 본 기록문화」, 『선사와고대』 47, 2016b.
- 전호태, 「울주 천전리 암각화 동물문 연구」, 『한국사연구』 182, 2018a.
- 전호태,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b.
- 전호태, 장명수, 강종훈, 남연의, 윤희정, 『울산 천전리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
- 전호태, 이하우, 박초아, 『한국의 풍요제의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7.
-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모석(母石)·기자석(祈子石)·망

부석(望夫石)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6, 2013.

João Pedro Cunha Ribeiro, “O VALE DO CÔA VINTE ANOS DEPOIS. O PASSADO, O PRESENTE E O FUTURO DE UM DESAFIO PATRIMONIAL,” 『코아계곡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청, 2015.

VALUE AND MEANING OF ULSAN CHEONJEON-RI GAKSEOK

JEON HOTAE (JEON, HO TAE)

Ulsan Cheonjeon-ri Gakseok Petroglyphs hold much value and meaning in culture, art and religion. The single rock surface contains abundant records ranging from the petroglyphs dating as far back to Neolithic Age to texts from Unified Silla Period. The fine engravings of the historic period tell distinctive narratives, visually showing specific events. The texts in Chinese character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Unified Silla period are valuable records that tell of historical events which of written records do not remain.

The animals and humans depicted in stippling techniques and abstract geometric images made with grinding technique each shows the aesthetics and the techniques relevant to the corresponding period in prehistory. Cheonjeon-ri Gakseok Petroglyphs serves as a valuable evidence that shows when the ancient Korean artistic tradition of depicting subjects in distinctive, simplified manners began. Various petroglyph images and line engravings from the historic period also shows the range of artistic expression and period-specific characteristics. Cheonjeon-ri Gakseok Petroglyphs that has a wide range of techniques and subjects remain unique and rare i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similar examples in Korea or elsewhere.

Considering that petroglyphs result from the rock worship, Cheonjeon-ri

Gakseok Petroglyphs also serve as a holy place where religious ceremonies took place in prehistory. This also suggests that the rock itself was valued as an object of worship. The numerous texts on the Cheonjeon-ri Gakseok surface relates to such acts of rock worship. The many lines on top of the texts should also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folk religion.

Key Words : Cheonjeon-ri Gakseok, petroglyphs, records, value, meaning